

“통기타처럼, 잊혀지지 않는 음악 할래요”

정규앨범 '나랑 갈래'로 정식 데뷔한 곽진언

슈스케6 우승 후 소속사 '뮤직팝' 동지
꼬박 12개월...11트랙 직접 프로듀싱
“과묵한 이미지? 말도 많고 잘 놀아요”

곽진언(25)에게선 '바른 청년'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준수한 용모와 진지한 말투도 그렇지만, 음악적 방향에 대한 고민과 상업성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드러낼 때 더욱 그랬다. 셋방살이 가난한 음악가로 살면서도 '슈퍼스타 K6'(슈스케6) 우승 상금 중 2억원을 어려운 어린이들의 공부방 마련을 위해 쾌척한 일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가치관은 말과 태도에서 충분히 배어져 나왔다.

2014년 '슈퍼스타K6' 우승자 곽진언은 최근 첫 앨범 '나랑 갈래'를 내고 정식 데뷔했다. 그러기까지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의 소신과 인성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곽진언은 '슈스케6' 이후 고민과 선택의 시간을 보냈다. 즉각 데뷔해야 하는지, 소속사는 어떻게 할지 등이었다. '슈스케6 우승자' 후광

을 업고 성급하게 앨범을 내기보다는, 우선 음악을 잘 펼칠 수 있는 소속사를 먼저 찾았다. 뮤지션으로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숨고르기를 한 것이다.

작년 2월, 평소 존경하던 가수 김동률과 이적의 추천을 받아 뮤직팝에 등지를 틀었다. 그리고 첫 음반에서 어떤 음악을 보여줄지 고민했다. 상업적 성공을 위해 지극히 대중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만의 음악세계를 먼저 펼치기로 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음악 작업에만 매달렸다.

“첫 음반을 정규앨범으로 하자는 회사의 제안에 기뻐다. 나도 그러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규앨범은, 빨리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곽진언은 자신이 생각한 음악적 장점, 하고자 하는 음악을 잘 버무려 첫 앨범 '나랑 갈래'의 11트랙을 모두 프로듀싱했다. 자신의 색깔을 오롯이 드러내겠다는 의지이자 음악성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야말로 '곽진언표 음악'의 탄생이다.

“하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다. 작업을 끝냈다가도 다시 옆으로 서 꼬박 12개월을 보냈다. 내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앨범이었으면 했다. 솔직한 음악으로 첫 인사를 하고 싶어 화려한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담으려 했다. 제 음악에서 풋풋함을, 진솔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곽진언의 매력은 중저음의 묵직한 목소리다. 이를 기타와 결합시키면 '쓸쓸한 음악'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어진다.

“쓸쓸한 음악은 위트가 된다. 잔잔함에서 오는 포근함이 좋다. 공연할 때 공감하고 교류하는 데도 좋다. 공연하면서 나 스스로도 위로를 받는다. 관객이 공감해주면 기쁘고 보람 있고 자존감도 느낀다.” 하지만 그 감성은 가수마저 우울하고 과묵한 이미지로 만든다. 실제로 만난 그 역시 꽤나 진지해보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울한 감성을 좋아하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말도 많고 쾌활하며 사교성도 있고 늘 때는 잘 놀다”고 ‘선입견’을 경계했다.

“통기타 음악은 유행을 안 탄다. 어디선가 꾸준히 흘러나온다. 따뜻한 음악이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나도 잊혀지지 싫다. 보편적 감성을 노래하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음악을 하고 싶다.”

곽진언은 '슈스케6' 이전엔 서울 서교동 일대, 이른바 '홍대'의 언더그라운드 무대에 올랐다. “수입이 불안정한 가난한 음악가로만 살 자신이 없었다”는 그는 “미래의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슈퍼스타K’ 출연 배경을 솔직하게 말했다.

“내 입으로 '나는 가수 곽진언이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겠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가수 이소라 “좋아하는 사람 있다”

소극장 공연서 짝사랑 감쪽 고백

가수 이소라가 공연 무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18일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3주일 일정의 소극장 콘서트 ‘여섯 번째 봄’을 시작한 이소라는 둘째 날인 19일 공연 도중 이 같은 돌발고백을 했다.

이소라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좋아한 지) 꽤 오래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혼자 좋아하게 되면 영원히 좋아할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자신

이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짝사랑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짝사랑으로 끝날지라도 행복하다는 의미였다. 이소라의 ‘슬픈’ 사랑 이야기에 객석은 따뜻한 박수로 격려했다. 1969년생인 이소라는 여전히 ‘싱글’이다.

이소라는 가을 발표할 새 앨범인 9집 이야기도 꺼냈다. 현재 다양한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고 있는 이소라는 9집 제목을 ‘그녀 품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가을에 꼭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소라는 두 시간 공연에서 특유의 우울한 분위기의 노래를 들려줬다. 20곡의 레퍼토리는 6집 ‘세이렌’으로 시작



이소라

해 ‘처음 느낀 그대로’ ‘제발’ ‘바람이 분다’ ‘트랙’ ‘난 별’ 등 1~8집 수록곡으로 고루 구성했다. 이승환, 홍종호, 임현일, 이상민 등 실력과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춰 서정적 감성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21일까지 첫 주 공연을 끝낸 이소라는 사흘 휴식 후 25~29일 공연하고, 일요일을 쉬 뒤 다시 6월9~12일 무대를 펼치며 ‘여섯 번째 봄’을 마무리한다. 이후 곧바로 앨범 작업을 재개해 가을에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김원경 기자

재결성 젝스키스, 6월부터 본격 활동

YG “6월 스케줄 최대한 비워 달라”

16년 만에 재결성한 젝스키스가 6월부터 그룹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근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YG)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행보에 대해 관심을 끌었던 이들은 내달부터 개개인인 아닌 그룹의 일원으로 서 팬들과 만난다.

지금까지 젝스키스는 스케줄이 맞는 멤버들 3~4명씩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왔다. 앞으로는 재정비한 모습으로 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강성훈, 장수원 등 다섯 멤버 전원이 무대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그룹 활동을 담당하는 소속사 YG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우

고 각 멤버들의 개인 소속사 측에 “6월 스케줄을 최대한 비워 달라. 개인 활동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의 한 측근은 22일 “멤버들이 YG와 계약하기 전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어 다섯 명의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웠다”며 “6월부터 공식적으로 쟁기 활동을 시작해 새 음반과 콘서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내년 데뷔 20주년을 맞는 만큼 다채로운 활동에 팬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젝스키스는 18일 녹화를 마친 MBC ‘라디오스타’에 이어 SBS ‘판타스틱 듀오’,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 잇따라 출연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빅마우스

● “사실 김홍국 몰래 광고 하나 찍었다.”(개그맨 조세호)
22일 방송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최근 ‘조세호는 왜 안왔나?’라는 댓글놀이로 조세호를 화제의 인물로 이끈 김홍국이 “광고만 같이 찍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방송인 신동엽)
22일 SBS ‘동물농장’에서, 최근 ‘불법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다룬 뒤 현행법으로는 강아지 그 주인을 처벌하기 어렵다며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며.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부담없이 초기구입 및
설치비 0원

냉·난방기 반세기의 기술력 센추리

센추리 초절전 냉·난방기

강력한! 업소용 냉난방기!

중고 냉·난방기 최고가 매입 보상!

식당·상가·교회·사무실용



새로운차원의 DC TWIN로터리 압축기, 최적의 에너지절감최첨단 자동제어, 무한기변제어, 최고의 설치 유연성

ALL인버터 SYSTEM 냉난방기

이정도 혜택이면, 구매 하시겠습니까?

- ✓ 초기구입비용 0원
- ✓ 최장 36개월 렌탈 / 리스 / 할부 가능
- ✓ 무담보·무보증 /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OK!
- ✓ 카드 선포인트 최대 280만원 차감 혜택!

신한 국민 외환 삼성

- ✓ 각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가능

(주)센추리 공식판매원 | 상담

(주)JAE SAN | 전화

1588-3547 (24시간 상담가능)